

4/4 월요일

아침의 누림

요 15:4-5, 7

4 내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여러분 안에 거하겠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5 나는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가지들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떠나서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7 여러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 14:20

20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여러분이 내 안에 있으며, 내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고후 13:14

14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엡 2:17-18

17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에게 화평을 복음으로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던 사람들에게도 화평을 복음으로 전하셨습니다.

18 왜냐하면 그분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엡 3:16-17

16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 주시고,

17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서

요한복음 15 장에서 주 예수님은 자신이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포도나무의 가지들로서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해야 한다. 그럴 때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신성한 삼일성 안에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하는 것은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신성한 삼일성 안에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는 것은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사는 것이다. 요한복음은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책이다.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사는 것에 관한 진리는 서신서들에서, 특별히 바울이 쓴 서신서들에서 매우 자세히 설명된다. 서신서들에서 우리는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사는 것의 모든 실질적인 측면들과 세부 항목들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사는 것의 체험 안으로 이끌려 들어가야 한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할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산다.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삶, 8 장, 113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성경의 신성한 계시 외에는 우리가 또 다른 인격 안에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종교나 철학이 없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삼일 하나님 안에 살 수 있음을 계시한다. 삼일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 존귀한가! 삼일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은 기적적인 일이다. 온 우주 가운데 우리가 삼일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다는 이러한 기적이 있다.

신성한 삼일성 안에 사는 것은 참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요 15:5). 그리스도는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셨다. 포도나무의 예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합당하게 이해하도록 해 준다. 가지들은 포도나무 안에 거하고 있다. 이것은 가지들이 나무 안에 살고 있음을 의미한다. 삼일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은 마치 가지들이 포도나무 안에 거하는 것과 같다.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이시라는 것은 놀랍다. 예수님은 소나무가 아니시며, 온 땅으로 번어 나가고 자라는 포도나무이시다. 그분께서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열매를 언제 어디서든 쉽게 얻을 수 있다.

이 포도나무에는 많은 가지들이 있다. 모든 가지들은 포도나무의 완성이다. 가지들이 없다면 포도나무는 완전한 나무일 수가 없다. 포도나무와 그 모든 가지들은 하나의 유기체로서, 포도나무의 속생명을 표현하고 포도나무의 목적을 이룬다. 신성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께는 어떤 표현이 필요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의 목적을 갖고 계신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는 그분의 생명을 표현하고 그분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유기체가 필요하시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유기체인 포도나무이시며, 지금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고 있다.

‘거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에는 ‘체류하다’ 또는 ‘머물다’라는 뜻이 있을 뿐 아니라 ‘거처를 가지다’ 또는 ‘거처를 정하다’ 라는 뜻도 있다. 요한복음 14 장에서는 동일한 단어가 명사로 사용된다. 주님은 그분의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으며(2 절),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거처’를 정하시려고 오실 것(23 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거할 곳은 거처이다.

그러므로 거한다는 것은 집 안에 거주하는 것이다.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거처로 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지들이 나무 안에 거한다면 그것은 가지들이 나무 안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가지들은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삼일 하나님 안에 사는 것에 대한 참된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다. 삼일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분을 우리의 거처와 우리의 집으로 취하는 것이다. 포도나무와 그 가지들은 바로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이다. 따라서 삼일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유기체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삶, 8 장, 117-118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삶, 8 장

4/5 화요일

아침의 누림

요 15:1, 8, 26, 12, 14-15

1 “나는 참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8 여러분이 열매를 많이 맺는 이것으로 내 아버지는 영광스럽게 되시고, 여러분은 내 제자가 될 것입니다.

26 그러나 내가 아버지에게서 여러분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실재의 영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실 것입니다.

12 나의 계명은 이것인데, 곧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같이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14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것을 행한다면, 여러분은 나의 친구들입니다.

15 나는 더 이상 여러분을 노예라고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나는 여러분을 친구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 주었기 때문입니다.

엡 3:9

9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밝히게 하시어,

요 15:16

16 여러분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을 선택하여 세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나가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계속 남아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여러분이 내 이름 안에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요 16:13-14

13 그러나 실재의 영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모든 실재 안으로 안내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말씀하시며, 장차 올 일들을 여러분에게 알려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4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인데, 왜냐하면 그분께서 내 것을 받으셔서 여러분에게 알려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 장에서 우리는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께서 참포도나무이심을 본다.

참포도나무와 함께 그 가지들, 곧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아들 안의 믿는 이들은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이다. 이 유기체는 하나님의 경륜, 곧 신성한 분배 안에서 그분의 풍성으로 자라며 신성한 생명을 표현한다.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인 이 포도나무는 단체적이며 우주적이다.

요한복음 15 장은 포도나무이신 아들 그리스도뿐 아니라 농부이신 아버지와, 포도나무의 가지들인 그리스도의 몸과, 실재의 영이신 영 하나님을 계시한다. 포도나무로서 아들 그리스도는 중심이시다. ... 아버지 하나님의 온 존재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은 중심을 위한 것이고, 중심으로 체현되며, 중심을 통해 표현된다. 아버지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통해 표현되시고 나타나시며 영광스럽게 되신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은 근원이시고, 아들 하나님은 중심이시다. (신약의 결론, 영문판, 286 장, 2929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요한복음 15 장 26 절에서 영 하나님은 실재의 영이라 불리신다. 이것은 그 영께서 실재이심을 의미한다. 아버지 하나님의 온 존재는 아들 안에 있고, 그분께서 아들 그리스도 안에 집중해 놓으신 모든 것은 그 영에 의해 실재화 될 것이다. 아들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온 존재는 영 하나님 안에서 실재가 된다. 아들 안에 집중되어 있는 모든 것은 실재의 영에 의해 계시되고 나타나고 증언되고 실재화 된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은 근원과 창시자이시고, 아들 그리스도는 중심과 체현과 나타남이시며, 영 하나님은 실재화와 실재이시다. 이것은 지극히 심오하고 깊다.

또한 이 계시 안에는 삼일 하나님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도 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이다. 이 계시에서 교회는 포도나무의 가지들에 비유된다. ... 포도나무에서 가지들을 없애 버린다면 포도나무는 몸이 없게 될 것이다. 가지들이 없으면 포도나무는 뿌리와 등치 외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따라서 가지들이 포도나무의 몸이다.

아버지는 포도나무의 근원이시고, 아들은 포도나무이시며, 그 영은 포도나무의 생명 주이시다. 이렇게 위대한 포도나무는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이다. 아버지의 온 존재가 이 유기체 안에 있고, 삼일성의 둘째인 포도나무 안에

체현된다. 포도나무 안에는 그 영의 순환하는 생명 흐름이 있다. 그 영은 포도나무와 그 가지들을 유지하기 위해 아버지의 풍성을 전달하신다. 우리는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인 이 포도나무 안으로 접붙여졌다.

아버지 하나님의 온 존재와 모든 소유는 아들 그리스도 안에 집중되고 체현되고, 실재의 영 안에서 실재화 된다. 이제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으로 일해 넣어졌으며, 우리를 통해 표현되고 증언될 것이다. 요한복음 15 장에는 매우 중요한 네 항목이 있다. 그것은 근원과 창시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중심과 나타남이신 아들 하나님, 실재와 실재화이신 영 하나님, 단체적인 표현인 몸인 가지들이다. 가지들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그 영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표현하므로 매우 중요하다. ... 아들 안에 계시고 그 영이신 하나님의 존재는 몸인 가지들에 의해 표현될 것이므로 완전한 표현은 몸인 가지들에 달려 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온 존재와 모든 소유는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고, 아들의 온 존재와 모든 소유는 그 영으로 실재화 되며, 그 영의 모든 소유는 몸 안에,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있다. ... 그 영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은 우리 안에서, 즉 가지들인 교회 안에서 표현된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 삼일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표현되시고 나타나시며 영광스럽게 되신다. (신약의 결론, 영문판, 286 장, 2929-2930, 2938-2939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영문판, 285-286 장

4/6 수요일

아침의 누림

요 3:15

15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고전 1:30, 9

30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 곧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9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요일 1:3-4

3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 주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교통을 갖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통은 아버지와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4 우리가 이것들을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요 16:15

15 아버지께서 소유하고 계신 것은 모두 내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분께서 내 것을 받으셔서 여러분에게 알려 주실 것입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엡 3:20-21

20 이제 우리 안에서 운행하는 능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해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

21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골 3:16-17

16 온갖 지혜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은혜로 하나님께 찬송함으로써 거하도록 하십시오.

17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하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포도나무의 많은 가지들인 그리스도의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지체들로서 신성한

분배 안에서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를 형성한다. 요한복음 15 장 5 절에서 주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가지들입니다."라고 선포하셨다. 그러한 선포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믿는 이들이 한 나무라는 것을 함축한다. 그리스도와 믿는 이들, 포도나무와 가지들은 신성한 분배 안에서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를 형성한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5 장에 있는 포도나무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지들인 믿는 이들로 구성된 우주적인 포도나무이다. 바로 이러한 포도나무, 이러한 유기체 안에서 삼일 하나님께서 사시고 그분 자신을 표현하시며 최대한으로 그 분 자신을 분배하신다.

우리는 사실상 무한하신 하나님의 가지들로서 그분과 유기적으로 하나이다. 이것은 우리가 삼일 하나님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었다는 뜻이다. 우리 몸의 지체가 우리의 일부이듯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일부이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들이고 그분의 일부라는 것을 볼 것이다. (신약의 결론, 영문판, 286 장, 2930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의 타고난 생명에 의하면,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들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의해 우리는 아담의 가지들이고, 심지어 마귀의 가지들이다. 마치가지가 나무의 번어 나옴인 것처럼 우리는 태어날 때 아담의 번어 나옴이었다. 아담의 가지들로서 우리는 또한 사탄의 가지들이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분께서 우리 안으로 가지를 번어 내셨다는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번어 내심으로 우리는 이 놀라운 신 그리스도의 가지들이 되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번어 내심이 우리를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의 가지들로 만들었다. 이제 가지들로서 우리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채워지는데, 왜냐하면

포도나무 안의 가지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가지들입니다.”(요 15:5)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강하게 “아멘.”이라고 말해야 한다. 다만 “할렐루야, 저는 가지입니다!”라고 계속 말하라. 포도나무의 가지들인 우리는 그리스도로 채워질 것이다.

포도나무 외에는 그 어떤 나무도 믿는 이들과 그리스도 사이의 살아 있는 관계를 적절히 예증할 수 없다.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와 달리 사실상 몸통이 없다. 포도나무의 가지들을 쳐 낸다면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뿌리만 있게 될 것이다. ... 포도나무는 가지들에게 모든 것이다. 포도나무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또한 가지들 안에 있다. 이것은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서 가지들인 우리에게 큰 누림이심을 가리킨다. 포도나무에게서, 포도나무를 통해서 우리는 가지들로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받는다.

포도나무의 가지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포도나무 안에 거해야 한다. ... 가지들이 포도나무 안에 거할 때에만 포도나무가 가지들에게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주님은 포도나무이신 그분 자신과 가지들인 우리에게 관하여 “내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여러분 안에 거하겠습니다.”(요 15:4)라고 말씀하셨다. 우리의 삶과 누림은 포도나무 안에 거하는 것이다. 가지들로서 우리의 운명은 포도나무 안에 머무는 것이다.

포도나무를 떠나서 가지들인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나무의 가지는 포도나무를 떠나면 마르고 죽을 것이기 때문에 혼자서 스스로 살 수 없다. 가지들과 포도나무의 관계는 우리와 주 예수님의 관계를 묘사한다. 그분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의 존재,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하는 것은 반드시 주님 안에 있어야 하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모든 것을 포도나무 안에 거함으로 해야 한다.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매일의 누림을 위한 모든 것을 포함한 뭍이시다. 우리는 주님께 가지들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포도나무이시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분 안에 거해야 하며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의 체험 가운데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실 것이다. (신약의 결론, 영문판, 286 장, 2930-2932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요한복음 라이프 스타디, 32-34 장

4/7 목요일

아침의 누림

요일 4:13

13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압니다.

요일 2:6

6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또한 그분께서 행하신 대로 직접 행해야 합니다.

요 15:2

2 내 안에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마다 아버지께서 잘라 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깨끗이 손질하십니다.

요일 2:28

28 이제, 어린 자녀 여러분,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으며, 그분께서 오실 때에 그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일 3:23-24

23 하나님의 계명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24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을 통해 압니다.

요일 4:4, 7, 21

4 어린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며, 그들을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분께서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7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왜냐하면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압니다.

21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분께 받은 계명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거하는 것에 달려 있다. 거하는 것은 우리가 포도나무 안에 있는 가지들이라는 분명한 이상에 달려 있다. 포도나무 안에 거하려면, 우리는 우리가 포도나무 안의 가지들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보아야 한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님, 제가 포도나무 안에 있는 가지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한다.

일단 자신이 포도나무 안에 있는 가지들이라는 사실을 보았다면, 우리는 우리와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사이의 교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어떤 절연체든 절연체는 우리를 포도나무의 풍성한 공급에서 분리할 것이다. 작은 불순종이나 어떤 죄, 죄악된 생각까지도 우리를 포도나무의 풍성에서

분리하는 절연체가 될 수 있다. 먼저 우리는 우리가 가지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보아야 한다. 그런 후 우리는 우리와 주님 사이의 교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 어떤 것도 그분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된다. 체험을 통해 우리는 작은 것 하나도 우리를 포도나무의 풍성한 공급에서 끊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따라서 우리는 “주 예수님, 당신과 저 사이에 당신의 풍성한 공급에서 저를 끊어지게 하는 그 어떤 것도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한다. (신약의 결론, 영문판, 286 장, 2932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한,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이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에 달려 있다. 우리가 거하는 것은 그분께서 거하시기 위한 조건이지만,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나 번덕스러우므로 조건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길이 없다. 그분은 변하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많이 변한다. 우리는 오늘은 그분 안에 거하다가 내일은 그분에게서 떠날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에 달려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한 조건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여러분 안에 거하겠습니다.”(요 15:4)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분께서 거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하는 것에 달려 있다. 이렇게 서로 안에 거하는 것이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가지들이인 우리와 관련하여, 나무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공급과 부축과 모든 것이

되시기 위해 사신다. ... 나무에게 가지들이 필요하고 가지들을 떠나서는 나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오늘날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는 우리 없이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즉 포도나무를 자라게 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는 우리 없이는 움직이실 수 없고, 일하실 수 없으며, 그 어떤 활동도 하실 수 없다. (신약의 결론, 영문판, 286 장, 2932-2933 쪽)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다(요일 2:6). 삼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주님은 만물을 소유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며, 만물과 모든 사람에게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이 우주의 주님이신 분 안에서 살고 있다. 만일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지 않거나 우리 자신을 그분께 복종시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아무 효력이 없을 것이다. 포도나무 안에 거하는 것은 일상생활을 함축한다. ... 포도나무의 가지들은 포도나무에서 그들의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야 하고, 그분께서 행하셨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행해야 함을 뜻한다. 사람으로서 그분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행하셨다. 우리 또한 그분께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그분의 권위 아래에서 행해야 한다.

우리는 또한 아들 안에 거하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요일 2:24 하). 신약에서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과 함께 아버지의 본성을 소유하여 아버지를 표현하시는 분이시다. 아들들에게는 아들의 자격에 부여되는 모든 특권과 권리를 누릴 완전한 권리가 있다. 아들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본성을 누리며, 아버지를 표현하고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누릴 특권과 권리를 누린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배 권위와 관련된다. 아들 안에 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아들의 자격과 관련된다.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삶, 8 장, 118-119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83년, 3권, 영 안에서 주님과 상호 거하는 삶, 3장

4/8 금요일

아침의 누림

요일 2:24

24 여러분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십시오. 처음부터 들은 것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여러분도 아들 안에 거하고 또 아버지 안에 거할 것입니다.

요일 3:24

24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을 통해 압니다.

요 14:10, 23

10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그대가 믿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23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할 것입니다.

요일 15:9-10

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같이 나도 여러분을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10 내가 나의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여러분이 내 계명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입니다.

요 17:21

21 그들이 모두 하나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도록 하여 주십시오.

갈 4:6-7

6 여러분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 주셨으며, 아들의 영은 “아바 아버지!”라고 외칩니다.
7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아들이입니다. 아들이면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또한 아버지 안에 거해야 한다(요일 2:24 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우리의 아버지는 전능하시다. 우리의 아버지는 항상 살아계시며 결코 늙지 않으신다. 그분은 모든 길과 모든 일에서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 그분의 아들인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리자. 우리는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인 그리스도 안에, 지배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주님 안에, 아들의 자격을 지니신 아들 안에 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돌보시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있다. 우리가 삼일 하나님 안에 살고 있을 때, 우리는 고아가 아닌 아들들로서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신다. 우리는 우리를 돌보시는 분 안에 산다.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삶, 8 장, 119-120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과 아들 안에 거하는 것은 모두 요한일서 2 장 24 절에서 언급된다. 우리에게 아들이 있을 때 아버지도 있는데, 이것은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이시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은

아버지 안에 계신다(요 14:10). 우리는 아들 안에 거할 때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된다. 우리의 체험이 이 사실을 확증한다. 우리는 아들 안에 거하고 있는 동안,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낀다. 우리에게 주님도 있고 아버지도 있다.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하시는 아들이 있다. 우리가 아들 안에 거할 때 아버지께서 거기에 계시므로 우리는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누린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요일 3:24 상). 주님, 아들,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서로 다른 이 모든 칭호들은 어떤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요한일서 3 장 22 절부터 24 절까지를 읽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그분께 받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분께서 보시기에 기쁜 일을 실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을 통해 압니다.” 하나님은 계명들을 주신 분이시다. 이 계명들은 우리가 그분의 아들을 믿어야 한다는 것과,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고, 모든 형제들을 사랑하는 사랑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의 의미이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주된 항목들을 포함하는 삶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리스도를 믿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생활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형제들인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한, 우리는 온전하다. ... 우리가 그분의 아들을 믿고 그분의 아들의 모든 형제들을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것이 믿음과 사랑을 갖는 길이다.

요한일서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 아들 안에,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함을 본다. 이것은 삼일 하나님 안에 사는 것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제시한다. 삼일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은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인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의 권위와 지배권위를 가지신 주님 안에서, 아들의 자격을 지니신 아들 안에서, 아버지의 신분을 지니신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분의 다른 모든 아들들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신 하나님 안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신성한 삼일성을 체험하는 것의 의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 하나님 안에 거한다(요일 3:24 하).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우리와 하나님은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주님과 그리스도께 연결해 주고 이어 주시는 분은 그 영이시다. 이 ‘연결하시는 영’께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누리려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을 훈련해야 하고, 우리의 영으로 돌이켜야 하며, 우리의 영을 접촉해야 하고,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연결하시는 영을 만지게 될 것이다.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삶, 8 장, 120-122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83년, 3 권,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생명을 누림, 1-3 장

4/9 토요일

아침의 누림

요일 2:20, 27

20 여러분에게는 거룩하신 분의 기름바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압니다.

27 여러분으로 말하면, 그분의 기름바름이 여러분 안에 거하니, 아무도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기름바름이 모든 것에 관하여 여러분을 가르칩니다. 이 기름바름은 참되고 거짓되지 않으니,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대로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고후 1:21-22

21 그러나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께로 견고하게 붙이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22 그분께서 또한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시고, 그 영을 우리 마음에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고전 2:16

16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알아 주님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롬 8:27

27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은 그 영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 영께서 하나님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 133:1-2

1 보라, 형제들이 연합하여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즐거운가!

2 머리 위의 좋은 기름이 수염을 타고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의 옷단에 흘러내림 같고,

엡 4:3-6

3 화평의 매는 띠로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십시오.

4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름을 받았을 때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5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입니다.

6 하나님도 한 분이시며,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 위에 계시고, 모든 사람을 통과하여 계시고, 모든 사람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연결하시는 영의 인격에 의해, 삼일 하나님의 기름바름의 가르침에 따라 삼일 하나님 안에 거한다(요일 2:27). 요한일서 2 장 27 절의 문맥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기름바름이 삼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분’이라는 대명사는 앞에서 언급된 아들과 아버지 모두를 가리킨다(24 절). 아들과 아버지는 또한 영원한 생명을 가리킨다고도 볼 수 있다(25 절). 기름바름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원한 생명에 속한 기름바름이다.

기름바름은 복합된 관유, 즉 내주하시는 복합되신 영께서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것이다. ... 이 관유는 신성한 관유, 곧 신성한 페인트이다. 이 신성한 페인트 안에는 아버지의 요소와 아들의 요소와 영원한 생명의 요소가 있다. 이 신성한 관유, 곧 신성한 페인트는 출애굽기 30 장에서 바르는 기름 곧 복합된 관유로 예표되었다 (23-25 절). 이러한 관유의 움직임이 기름바름이다. 우리 안에는 이러한 기름바름이 있으며 이 기름바름이 우리를 가르친다. 우리는 이 놀라우신 분, 곧 그리스도, 주님, 아들, 아버지, 하나님이신 분 안에 거하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삶, 8 장, 122 쪽)

오늘의 입을 말씀

우리 안에는 움직이는 신성한 페인트가 있다. 이러한 관유의 움직임, 곧 이러한 기름바름에 의해 우리는 자신이 어떠한지,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누구와 접촉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해진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주님과 아들과 아버지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 생활의 모든 일에서 기름바름의 가르침에 따라 살 것이다. 때때로 내적인 기름바름은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웃지 말라고 말해 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 아들의 자격, 아버지의 신분,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는 복합된 관유 안으로 복합되어 있고, 이러한 움직임이 기름바름이다. 이 기름바름은 항상 우리를 가르침으로써 우리가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의 갈망과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존재를 알 수 있게 한다. 그분의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는 내적인 기름바름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즉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안다. 삼일 하나님의 기름바름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것이 신성한 삼일성 안에 사는 것이다.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삶, 8 장, 123 쪽)

우리가 몸 안에 있고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킬 때, 우리는 그 영의 기름바름을 얻게 된다. 우리는 머리 아래 들어가야 하고 몸 안에서 살아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기름바름을 받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합당한 위치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머리 아래 있지 않으며, 자신을 머리의 권위에 복종시키지 않는다. 또한 그들은 몸 안에 있지도 않다. 기름바름을 받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머리에게 복종해야 하고 몸 안에서 살아야 한다.

우리가 몸의 교통 안에 있을수록 더욱더 그 영의 기름바름을 누리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가 우리의 육체와 타고난 생명을 철저히 처리하도록 우리가 허락해야 한다는 것이다. 믿는 이가 교통을 누릴 수

있는지의 여부는 그가 자신의 타고난 생명을 처리했는지에 달려 있다. 우리의 타고난 육체는 오직 죽기에만 마땅하고, 재 가운데, 십자가에 있기에만 마땅하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어떤 것도 스스로 제안할 자격이 없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에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는 것을 허락해 드려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그분께서 완전히 주님이 되시는 것을 허락해 드려야 한다.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십자가로 처리받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에 복종하고, 몸의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그 영의 기름바름을 가지며 몸의 교통을 누릴 것이다. (워치만 니 전집, 44 권, 특별 집회, 메시지 및 대화 기록(4), 102 장, 132-13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요한일서 라이프 스타디, 22-23, 25 장; 생명의 체험(상), 7 장

4/10 주일

아침의 누림

요일 4:9-12, 14-19

9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10 사랑은 이렇게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분의 아들을 우리의 죄들에 대한 화해 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11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12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됩니다.

14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지금 또 증언합니다.

15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16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가지신 사랑을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17 이것으로써 사랑이 우리에게서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존재 그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18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으며, 온전한 사랑은 도리어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형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한 것입니다.

19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1064 장 놀라운 생명과 이상

- 1. 놀라운 생명과 이상 우리의 비밀일세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 되었네

(후렴)

주 안에 거하세 주 안에 거하세
하나님의 풍성 누리며
생명에 거하며 떠나지 않으리라
영원히 이 곳에 살리

- 2. 옳은 길 찾기 위하여 애쓰는 형제들아
모든 것 내려 놓고서 포도나무 안에 거하라
- 3. 거룩한 기름 부음이 모든 것 가르치니
주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 맛보리
- 4. 생명의 강이 흐르고 밝은 빛 넘치는 곳
사람과 하나님 거처 포도나무 안에 거하세

악보 / 음악 (한 1064 / 영 1162)

<https://www.hymnal.net/en/hymn/h/1162>

추가로 읽을 말씀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삶,
8 장
신약의 결론, 영문판, 286-286 장
요한복음 라이프 스타디, 32 장
위트니스리전집, 1983년, 3 권, 영안에서 주님과
호거하는 삶, 3 장

2022. 4. 4 ~ 2022. 4. 8
단체로 읽을 말씀: “하나님을 누리는 길”
20 장